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담양 수목길’ ‘섬진강길’ 등 전국 10곳 선정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길을 따라 여유와 명상에 잠길 수 있는 ‘담양 수목길’ 등 전국 10곳이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서울 성곽길’을 비롯해 역사와 문화의 자취가 살아 있는 곳 중 걷기에 좋은 곳을 골라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10곳에는 일본 강점기 수탈의 아픔과 교역도시인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금강 하구길’, 옛길을 찾고 가꾸자는 차원에서 삼남대로 구간 중 옛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전남 장성과 전북 정읍 구간인 ‘갈매길’, ‘섬진강길’도 포함됐다.

문화부는 올해 선정된 문화생태탐방로에서 청소년여행문화학교, 탐방로 보물찾기, 캠프 등 다양한 걷기 행사를 마련한다.

또 선정된 탐방로 별로 스토리텔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초록터널’같은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광주일보 자료사진>

범기철태권무용단, 화요일예술무대에

‘초혼(招魂)의 춤’ 주제로 내달 5일 문예회관

태권도의 세계화와 예술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범기철태권무용단이 내달 5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화요일예술무대에 선다.

1979년 범기철씨가 창안한 태권무는 태권도를 기본으로 무예의 힘과 무용의 유연형적 곡선, 절제된 예술적 미가 융합·조화된 무예무용이다.

‘초혼(招魂)의 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범기철태권무용단, 선양무용단(안무지도 김영자), 청흥체육관 태권체조팀(관장 현동수) 등이 각각 태권도와 관련한 개성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범기철씨가 ‘기원무’와 ‘태무정’(김지나씨와 듀엣), 동구노인종합복지관태권무용단과 빛고을노인건강타운태권무용단인 ‘정기신타법 1, 2’ ‘탱그리파의 회상’을 공연하고 청흥태권체조팀이 ‘태권체조’를 시연한다.

선양무용단은 ‘입춤’과 ‘한량무’, ‘살풀이’를 무대에 올리고 생명하모니(단장 송희만)는 트리오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국효문(호남대 교수), 이경은씨가 시를 낭송하며 에텔바이스 요텔클럽의 요텔송 공연, 동구노인종합복지관난타공연단 난타공연도 함께한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223-567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은

“누구나 공감할 우리들의 이야기”

75분간 단 두명의 배우 열연... 연극보는 맛 느끼게 해주는 작품

광주극단 크리에이티브, 4월23일까지 씨디아트홀서 16회 공연



31일부터 씨디아트홀에서 공연되는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의 주인공 노희설(사진 오른쪽), 임성재씨가 연수에 한창이다. /최헌배기자 choi@kwangju.co.kr

이 등장해 반갑다.

외관원 역을 맡은 노희설(46)씨는 맞춤형 연기를 보여준다. 현재 KBC TV ‘생방송 투데이’ 패널리, KBS 라디오 ‘빛고을 가요 차차차’ 진행자로 활동중인 노씨는 연극 경력 25년의 베테랑 배우다. 10여년 동안 방송인으로 외도했다 지난 2009년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의 ‘의자는 잘못 없다’로 컴백했다. 한창 활동 당시 광주연극제에서 연기상을 받을 정도로 내공이 탄탄한 그는 북극작으로 지난해 전국소극장네트워크 페스티벌에서 연기상을 수상하며 저력을 발휘했다.

상대역으로 출연하는 임성재(26)씨는 지난해 수월연 극단의 젊은파다. ‘벗꽃동산’ 등에 이은 세번째 작품으로 2인극을 끌고 가기는 조금 벅차보이지만 가능성을 충분히 보인다. 연출은 극단 대표 이행원씨가 맡았으며 희곡은 이숙중씨 작품이다.

공연은 31일~4월23일(목·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7시) 광주 씨디아트홀에서 총 16회 공연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중·고생 1만 5,000원. 연극촌 홈페이지(cafe.daum.net/drama2003)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62-521-75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검사와 여선생’ ‘의자는 잘못 없다’ ‘학문의과’ 등 이어져

■ 크리에이티브 올레퍼토리

2011년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의 약진이 눈에 띈다.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는 자체 소극장 씨디아트홀을 갖고 있는 터라 타 극단보다 역사는 짧지만 레퍼토리를 많이 확보했다. 무성영화를 새롭게 해석한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은 4월 13~18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의 초청을 받아 문

화관 동산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지난 번 공연과 마찬가지로 연극배우 윤희철씨가 변사로 무대에 선다.

지난 2009년 첫 공연된 ‘의자는 잘못 없다’는 광주 출신 선육현 작가의 작품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무대에 올라 많은 사랑을 받았다.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이 끝나면 곧바로 씨디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단원들이 직접 희곡을 쓴 ‘학문의과’는 가을에 광주우체국보림회관 ‘기

분 좋은 극장’에서 장기 공연에 들어간다.

‘육탑방 고양이’, ‘내 이름은 김삼순’ 등 서울 대학로 작품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온 기획사 ‘유쾌한 상상’이 지역 극단과 손잡고 무대에 올리는 첫번째 작품이다. ‘학문의과’는 지난해 서울 극단에 희곡을 판매하기도 했으며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전국소극장네트워크 페스티벌에도 초청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인의 ‘억압된 일탈’

허진 개인전, 4월24일까지 서울 성곡미술관

떠남과 머무름은 인류의 오랜 화두다. 생계를 위해 태어난 곳을 떠나 타지를 맴돌아야 하는 현대인의 불안은 문학, 미술, 영화 등 모든 장르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유목민의 삶을 다루고 있는 종건 한국화가 허진(전남대 예술대학 교수)씨가 오는 4월24일까지 서울 성곡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성곡미술관의 ‘종건·종진작가 집중조명 기획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가로 선정돼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그는 ‘억압된 일탈’을 주제로 문명 속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현대인의 삶을 동물에 빗대 표현한 신작 40점을 발표한다.

호남 남종화의 시조인 소치 허건의 고손자이며 남부 허건의 장손이기도 한 그는 지난 1년 동안 안식년을 맞아 서울 작업실에서 작품 창작에만 몰두했다.

전시는 유목민의 삶을 다룬 ‘노마드-안티노마드’, 미래의 이상적 세계와 현실을 대비시킨 ‘유토피아-디스토피아’, 20여 년 동안 천착한 ‘유목동물’ 연작으로 나눠 진행된다.

동양화의 족자 형태를 본 딴 설치작품 ‘억압된 일탈’은 할아버지 허진이 생전 아끼던 수석과 동물 연작을 결합시켜 어린 시절의 추억과 현재의 외로움을 대비시켰다. 또 각기 다른 동물의 신체 일부를 결합시킨 ‘이종융합동물’ 연작은 과학이 만들어 내는 부작용과 비인간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

그는 “한 평론가가 ‘새로운 작품을 보여줄 것 아니면 전시회를 하지 말라’고 말해,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신인의 마음으로 끝부분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고, 캐나다,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13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입장료 성인 3000원. 문의 02-737-7650.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익명인간-여로’

국립광주박물관, ‘우리 가족 박물관 탐방’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오는 4~10월 전남 지역 박물관·미술관의 유물과 전시회를 감상하는 ‘우리 가족 박물관 탐방’에 나선다. 가족 단위 관람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박물관에서 마련한 차량을 타고 무료로 전남의 문화 공간을 둘러볼 수 있다.

오는 4월9일 오전 10시 출발하는 첫 탐방지는 해남공룡박물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고산선선도유물전시관이다. 또 같은 23일에는 순천전통야생채취체험, 순천낙안읍성 자료전시관을 둘러보고, 5월14일에는 함평잔말미술관, 장성 필암서원을 찾아가는

이 밖에 고흥동강민속체험관, 곡성삼청문화센터, 여수해양수산과학관, 광양장도박물관 등지를 둘러 볼 수 있다. 문의 062-570-7068.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eumsoo Jang Hotel Arirang House. Features images of chefs and a table of food. Text includes: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Since 1981 i+g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 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 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집 처럼 편안한 객실!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광주와인문화 1번지 모리나리!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Advertisement for moviehelic featuring cinema listings. Includes logos for Columbus Cinema, Megabox, and Cinus. Lists movies like 'Kingsman: The Secret Service' and 'The Hitman's Bodyguard' with showtimes and prices. Contact info: 1588-7941, 1544-0600, 1544-0070.